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2>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의 의미

큰 사찰을 찾아 가면 입구마다 일주문이 서 있고, 그곳에는 사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이들 상은 불법을 지키는 옹호신중으로서, 예로부터 불자들의 예배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화엄경이나 능엄경 등과 같은 주요 경전에는 한결같이 사천왕과 금강역사상이 출현하여 경전을 찬탄하고 이 세상 어디에 서라도 경전을 수지하는 중생이 있다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들에 대해 단순히 옹호신중이 아닌 대웅전에 모셔진 불·보살님 상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에 방문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청정하고 온화하신 모습은 세상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 주실 것 같고 온갖 소원을 빠짐없이 이루어



마음속에 들어찬 온갖 욕망과 번뇌 똑바로 보라

주실 것만 같아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사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상(相)과는 정 반대되는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은 무섭고 성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꺼려합니다. 저 모습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를 일러주는, 또 다른 방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의 부릅뜬 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추호도 감추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으며, 들고 있는 칼이나 주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적과 악을 용납하지 않고 부숴버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 상들이 밝고 있는 잡귀를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욕망과 번뇌들로, 항복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통한 해탈에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일주문을 통과해 부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과 번뇌를 깨뜨리는 행위가 수반될 때 성취됩니다.

사천왕이나 금강역사를 외적 존재로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존엄하게 심판하는 내적 존재로 돌리는 것이 저들을 바르게 신봉하는 길입니다. <유마선원장>

美 프로비덴스 센터

수행현장을 가다

참선 수행에 종교 장벽 있나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로 사방이 얼어붙은 듯 고요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덴스 센터(선원장 대광의 아침, 1월 17일 오전 4시 45분, 새벽 예불(Morning Bell Chanting)의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회색 적삼을 차려 입은 미국인 불자들이 조용히 법당인 달마룸에 모여들었다.

영문 삼귀의와 108배, 잠시 숨을 돌린 후 지심귀명예,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봉독이 이어지고 불자들은 영문 반야심경을 읽으며 새벽 예불의 의미를 되새겼다.

“Avalokitesvara Bodhisattva when deeply practicing the Prajna Paramita...”

30여 분의 좌선이 끝나자 어느새 1월 17일의 아침이 선연하게 밝아

왔다. 오늘은 한국 불교 참선 수행을 경험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30여 명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찾아왔다. 하루 동안 교묘한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명상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대광 스님이 바다를 내려친다. 쿵!

“지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쪽에 앉으신 분이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얼마나 연습이 필요하죠?”(웃음)

“참선에는 기교나 방법이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 보는 게 명상이죠. 이제 시작해 보세요.”

75년 센터 대학 교수 시절 승산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87년 출가한 대광 스님. 그리고 메사츄세츠 주에서 온 케빈 헌터 신부. 두 성직자는 17일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크리스천 부디스티 수련회(Christian Buddhist retreat)’를 열었다. 수련은 오전 오후로 나뉘어, 20분 좌선과 10분 경행으로 진행됐다.

휴식 시간을 이용, 불교와 선(禪)에 대해 문답하는 기회도 주어졌다.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 관음정근 중인 수련회 참가자들.



美 전역서 기독교인 30여명 모여 마음공부 새벽예불 끝내고 좌선과 경행 ‘참나 만나기’



대광스님-케빈 신부와 문답하는 수련생들.

참석자들은 좌복 위에 가부좌를 틀고 두 손을 단전에 모은 채 자기 안으로 빠져 들어갔다. 20분의 참선이 끝나면 경행을 하고, 경행이 끝나면 좌선이 이어진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 모습에서 생사 문제의 답을 구하는 수행자의 의지까지 묻어낸다.

“미국인들은 쇼핑물에서 잡지 하나를 집어들 듯 너무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선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의 바늘구멍에 실을 꿰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처음부터 공을 멀리 날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습, 연습, 연습하는 거예요.”

케빈 신부가 미국적 생활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명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명상이 세 시간, 네 시간째 이어진다. 처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20분간의 좌선도 쉽지 않다. 한 사람씩 합장 반배를 하고 일어나더니 사울 전에 이곳에서 오늘 수련에 참석한 미셀도 힘든 표정을 짓는다. 불편한 듯 몇 번 자세를 바꾸더니 합장 반배를 하고 조

용히 자리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녀는 “내 친구들이 명상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직접 부딪히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던 생각이 어리석었던 것 같다”며 환히 웃었다.

수련의 마지막은 열불 정근을 경험하는 시간. 대광 스님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자고 제안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온갖 소리를 잘 듣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자비심을 길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에 리듬을 탄 관세음보살 정근. 세상의 소리를 듣는 30여 수련생들의 마음에는 장벽이 없었다. 불교와 기독교,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있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승산 스님(화계사 조실)이 1972년 로드아일랜드 주에 세운 프로비덴스 센터는 세계 관음선종(Gwan Um School of Zen)의 중심 사찰이다. 대광 스님이 선원장격인 가이딩 티처, 종혜 스님이 주지를 맡아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프로비덴스 센터는 매해 미국인 불자 중심의 동안거, 한가적 결제 수행, 이틀간 진행되는 용맹정진,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마음(Hearth) 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제에는 일주일 단위 일제가 가능하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아침, 저녁 예불에 참가하며 1박을 할 때마다 30 달러, 기타 수련에 참가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프로비덴스=강유신 뉴욕특파원

크리스천 불교 수행 가이드 케빈 헌터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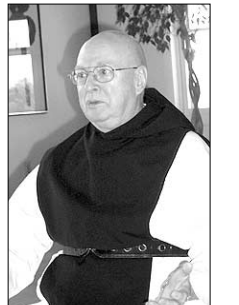
“불교, 기독교 명상수행 복원에 도움 줄 것”

“불교는 서양의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1월 17일 프로비덴스 센터에서 종교간 명상 수련을 지도한 케빈 헌터 신부는 “15, 16세기 과학의 발달에 따라 서구 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은 사라지거나 약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초기 기독교 속의 명상 수행도 소멸되거나 작은 그룹 차원으로 고립됐다”고 말했다.

케빈 신부는 “그러나 불교는 다양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등의 선불교는 강한 수행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 명상 수행은 기독교의 명상 수행 복원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세기 미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적인 미국인의 삶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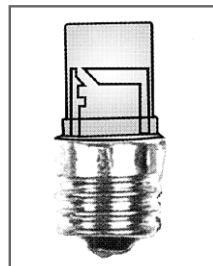
케빈 신부는 70년대 조수아 사사키 스님을 만나 불교를 배우고 명상 수행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부디스트 크리스천 수련 모임의 지도는 물론 종교간의 대화와 교환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85년부터는 흥법원과 인연을 맺고 크리스천의 불교 수행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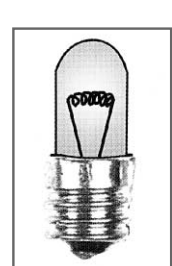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해움과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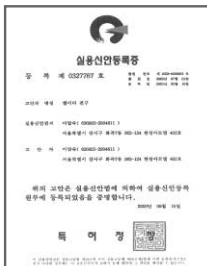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인등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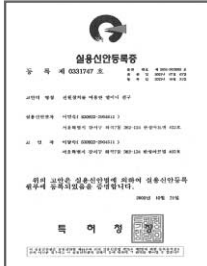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인등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2266-9098,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홍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통